

■ 논문 ■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 공존과 공생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 탐구

홍 용 진

1. 들어가며: 공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

현재 한국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라는 문구로 대변되는 이민과 이주 문제다. 21세기에 들어와 가속화 된 신자유주의와 경제 세계화의 물결은 이민자와 이주의 문제를 보다 깊이 한국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사실 한국인들에게 이주의 문제가 낯선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은 외국인들의 국내이주(immigration)가 아닌 한국인들의 해외이주(emigration)를 지칭했으며 이는 한국 해외동포들이 겪는 서러움의 공감대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제 21세기에 이것은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과 관련된 국내문제, 한국사회에 대한 공존과 통합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인의 해외이주(emigration)와 외국인의 국내이주(immigration)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경험한 한국의 이중적 이주경험, 즉 해외에서의 공존과 한국에서의 공존은 양자 모두 공통적으로 ‘공존 가능성’이라는 문제틀로 수렴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틀을 가장 잘 시각화하고 있는 영화들 중의 하나가 바로 12세기 말 제3차 십자군¹⁾을 전후로 한 예루살렘 왕국을 배경으로 하는 리들리 스콧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천상의 왕국)>일 것이다. 사실 이 영화는 2005년 개봉 당시 수많은 찬사와 동시에 우려 섞인 비판을

1) 십자군 운동에 대한 최신의 종합 개설서로는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 A New History of Crusades*(London: Penguin Books, 2007) 참조. 연구사 정리로는 미셸 발라, 「십자군에 관한 20세기 역사서술 -프랑스 학계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16호 (2005), 199-201.

함께 받았다. 이 영화는 12세기 말 십자군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존과 공생에 대해 강조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01년의 9.11 사건 이후 통속적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기독교적 서유럽-미국세계와 이슬람 세계 간의 갈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서유럽이나 미국도 이슬람도 아닌 우리는 이 영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단순한 액션 스펙터클이 아닌 이상, 이 영화는 현재 한국 사회에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지만,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면서도 창작된 허구(fiction)인 이 영화를 역사적 사실 및 배경과의 비교 속에서 읽어 나갈 때, 그 영화가 가져다주는 의미작용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점은 바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한 두 가지 비판적 축들 때문이다. 두 축들 중 하나는 영화 전면에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바로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 사이의 이분법적 대결구도이다. 이러한 이분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²⁾ 필자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영화는 이러한 이분법을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이분법을 보다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이 보인다. 다른 한 축은 영화에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인물들 간의 대사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바로 중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위계제에 대한 비판이다. 즉 영화는 귀족과 비귀족 사이의 구분, 성직자와 기사 사이의 구분 등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인간에게 가해지는 여러 사회적 차별들이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에 대한 비판이 근대적인 의미의 정치적 평등과 직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신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당대사회의 맥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대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국 두 가지 축들은 중 하나는 한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치는

2) 이 영화에 비판적인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과 미국의 십자군 전문 역사학자인 조나단 라일리스미스(Jonathan Riley-Smith)와 토마스 F. 매든(Thomas F. Madden)을 들 수 있다: Jonathan Riley-Smith, “Ridley Scott’s new Crusades film ‘panders to Osama bin Laden’”, *The Telegraph* (18 Jan. 2004); Thomas F. Madden, “Onward P.C. Soldiers: Ridley Scott’s Kingdom of Heaven”, *National Review Online* (May 17, 2005).

경계설정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부를 가르는 경계설정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판적 축들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는데, 그곳은 바로 인간성 그 자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여기에서 영화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건 인간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지점은 다시 두 축으로 발산이 되는데 하나는 타인들에 대한 이해와 개방으로,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부의 동등한 권리확보로 나아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글은 영화에 나타난 주요한 장면들에 대해 영화 내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이후에는 영화와 실제 역사적 사실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2. 영화(fiction) 속으로 : 천상의 왕국은 어디에?

십자군 100년의 과정이 짧은 자막으로 소개된 후 영화는 “1184년 프랑스”라는 자막과 함께 시작한다. 눈발이 휘날리는 음울한 겨울날씨는 이곳이 노르망디나 피카르디, 또는 플랑드르와 같은 북부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내의 자살로 실의에 빠진 젊은 대장장이 벨리언(발리앙 Balian)은 자신의 재산을 가로챌 기회만 노리는 마을의 말단사제인 동생을 우연치 않게 죽이고 만다. 때마침 이 마을에는 일군의 십자군 기사들이 들르게 되는데 그 수장은 바로 벨리언의 아버지 갓프리(고드프루아Godefroi)였다. 그는 이 고향땅에서 자신을 죽여서 예루살렘 영지를 상속받으려는 형의 아들(조카)과 그의 군대와 충돌을 하게 되고 깊은 상처를 입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서자 벨리언과 함께 ‘성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향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³⁾

성지로 가는 항구 메시나에서 갓프리는 상처가 깊어 사망하게 된다. 죽기 전 그는 벨리언에게 이슬람과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에게 기사서임을 하고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이벨린(또는 이블린)⁴⁾의 영주로 임명하였다. 성지로 가는 배가 난파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우여곡절 끝에 무슬림 현자 이마드의 도움으로 찬란하고 번성한 예루살렘 왕국⁵⁾에 당도하게 된다. 이벨린의 새로운 영주로 인정받은 그는 예루살렘 왕국의 일원으로 이곳 정치세계에 입문하게 된다. 세력을 넓혀가는 살라흐 앳딘(살라딘)의 위협 앞에서 왕국은 두 파로 분할되어 있었다. 살라딘과의 전쟁을 무모하다고 여기고 그와의 평화와 공존을 주장하는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 일명 티베리아스⁶⁾와 무조건적인 성전을 외치는 성전기사단의 수장 기 드 뤼지냥과 레이놀드(르노) 드 샤틀용. 그 동안

- 3) 영화에서 대장장이 벨리언(올랜도 블룸)은 갓프리(리암 니슨)의 사생아로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갓프리가 정식으로 결혼한 본처와 정실 자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갓프리는 십자군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벨리언을 낳은 듯 하다. 즉 벨리언은 귀족인 아버지와 평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위계상의 경계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영화에서 가족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물은 벨리언의 동생으로 나오는 마을 사제(마이클 쉰)이다. 그가 갓프리의 아들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필자 추정으로 마을 사제는 벨리언과 이부형제(異父兄弟)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에 사제는 귀족과 평민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 물론 일반 평민 출신 사제가 고위성직자가 되기란 매우 힘들었다.
- 4) 예루살렘 왕국 내 영지 이름으로 현재 명칭은 야브네(Yavne)이다
- 5)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공했던 십자군이었던 제1차 십자군의 원정(1096-1099) 결과로 시리아-팔레스틴 지역에 에데사 백작령, 안티오크 공령, 트리폴리 백작령,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4개의 십자군 제후국이 건설되었다. 당시 한창이었던 북부 프랑스의 전형적인 봉건제를 정치조직으로 채택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십자군의 정복은 매우 잔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099년의 예루살렘 함락의 잔혹함은 지중해 지역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1187년 기 드 뤼지냥 재위 당시 살라흐 앳딘에 의해 함락 당했으며 이후 잔존 세력이 생장다크레(Saint-Jean-d'Acres)에서 명맥을 이었으나 이 또한 1291년에 멸망하였다.
- 6) 레몽 3세(Raymond III, 1140-1187)는 트리폴리 백작으로 제1차 십자군에 참가했던 대제후들 중 하나인 툴루즈 백작 레몽 4세의 직계 후손이다.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티베리아스(Tiberias) 영지를 결혼으로 획득하였다. 영화에서는 예루살렘 왕국 내 그의 영지 이름에 따라 티베리아스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벨리언은 이블린 영지를 새롭게 개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한편 화평과 공존에 더 큰 관심을 가진 볼드윈(보두앵) 4세의 신임을 얻는다. 또한 그의 여동생 시빌라(시빌)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영화는 주인공이 프랑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오는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전형적인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줄거리를 따른다. 이 험난한 여정을 통해 주인공은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깨닫게 된다. 즉 영화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염세에 빠져 있던 한 개인이 드넓은 세상을 인식하고 그 세상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공존의 가능성을 확신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대해 열린 자아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주인공이 본시 원했던 종교적 깨달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성격을 지닌다. 그가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애초에 종교적 의미의 구원을 목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벨리언은 끝고다 언덕에서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예루살렘 인근 영지 이벨린에서의 삶이었다. 위계가 없이 농민과 기사, 성직자들이 합심하여 황무지를 사람 살만한 땅으로 개간해 나가는 노동의 과정을 통해 벨리언은 내세의 구원이 아닌 현세에서의 삶의 행복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 변화는 그가 이벨린 영지에 있는 저택에 들어섰을 때 거실 벽면에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를 보는 장면을 통해 암시된다(01:07:10). 그림 위에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너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qoud sumus hoc eritis; what we are, you will be)”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는 해골로 표현된 망자들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 그림과 문구는 이 영화에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인간이라는 점을 암시하며 동시에 죽음과 대비되는 인간 삶의 강도를 높여준다. 벨리언은 하이데거처럼 죽음을 선택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을 실존에 대한 각성이 아닌 타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운명공동체의 건설에서 찾고 있다. 나의 한계를 의미하는 죽음과 불안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닌 타인들에 대한 관심과 이들과의 공존이라는 실현가능한

상태로 - 레비나스적 의미에서 - 초월한다.⁷⁾ 이렇게 해서 천상의 왕국, 천국은 이 세상 바깥의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과 공생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예루살렘 왕궁은 이러한 공존과 공생과는 거리가 먼 분열과 배제, 대립의 도가니로 그려진다. 십자군 제후국들을 압박하며 팽창해 오는 살라흐 앳딘의 세력 앞에서 한편으로는 모든 이교도들에 대한 극단적인 항전을 앞세우는 주전파와 이들과의 공존과 평화를 통해 십자군 제후국들을 유지하고자 하는 화평파가 분열한다. 영화는 기 드 뤼지냥과 르노 드 샤틀용이 이끄는 주전파를 피에 굶주려 양민들까지 무차별 학살하는 살인귀와 같이 그려낸다. 반면 티베리아스를 중심으로 한 후자를 온건하고도 충성스러운 합리주의자들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가련한 왕 볼드윈과 주인공 벨리언은 티베리아스를 지지한다.

화평파들의 노력은 결국 주전파들이 감행한 비무장 무슬림 카라반 대학살과 살라흐 앳딘 여동생에 대한 살해로 위기를 맞는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약속한 볼드윈 4세의 노력으로 큰 충돌을 피하긴 했지만 나병에 걸려 있던 왕은 얼마 못가 죽고 만다. 시빌라에게는 일찍이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볼드윈 5세(보두앙 5세)로 즉위한다. 하지만 그 또한 나병환자로 곧 요절하게 되고 왕위는 시빌과 그의 새 남편 기 드 뤼지냥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광적인 주전파의 폭력성은 예루살렘왕의 사후에 기 드 뤼지냥의 오만하고도 무모한 태도로 벌어진 1187년의 하틴(Hattin) 전투에서 파국을 맞이한다. 병력의 대부분을 상실한 예루살렘 왕국의 운명은 명약관화하였다. 살라흐 앳딘 군대에 의한 일방적인 정복이 그것이다. 하지만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삶의 조건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벨리언은 남아 있는 군사들과 일반 양민들을 한데 끌어 모아 방어준비를 한다. 무조건적인 전쟁을 외치던 성직자가 비굴한 굴종의 태도로 돌변하는 에피소드는 벨리언이 귀족도 아닌 일반 평민 남성들을 모두 한

7)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강영안, 『타인의 얼굴-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고지성사, 2011), 104-112.

번에 기사로 서임하는 장면과 대비된다.

여기에서 벨리언이 행한 기사서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위기상황에서 미봉책으로 실시한 회유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귀족의 서자로서 대장장이에 불과했던 벨리언은 누구에게 예속당하는 것도 누구를 예속하는 것도 싫어했던 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이방의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굴복시켰던 무슬림 현자 이마드에게 동일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한마음으로 뭉친 예루살렘 주민들과 벨리언의 군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한 결과, 예루살렘을 어렵사리 정복한 살라흐 앗딘은 벨리언이 제시한 항복조건인 주민들의 생명권과 이동권 보장을 수락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었던 예루살렘 공성전의 경험, 살라흐 앗딘의 관대함은 벨리언이 이벨린 영지에서 경험했던 삶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그리고 보다 크게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벨리언은 살라흐 앗딘에게 묻는다,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명멸해 갔는지? 살라흐 앗딘은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니(Nothing)!”라고. 그렇지만 “모든 것(Everything)”이라고. 이 대사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통해 내세우는 유일신교들의 대의와 독단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거기에 거주하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진정 중요한 모든 것이라고...(모든 요소들을 획일적으로 묶어내는 “All”이 아닌 다양한 것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Everything”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시빌라와 함께 프랑스의 고향으로 되돌아 온 벨리언. 이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십자군의 대오와 마주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웅장했으나 가장 초라한 결과를 거두게 될 제3차 십자군의 대오가, 가장 용맹하게 싸웠으나 살라흐 앗딘 앞에 중과부적이었던 사자심왕 리처드 1세의

군사들이 멀어져 간다.⁸⁾ 결국 영화는 이곳에 여전히 평화가 오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린다.

하지만 감독의 시선이 마냥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영화는 천상의 왕국이 사람들의 공존과 공생이 현실 속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존과 공생의 현실화는 불변하는 어떤 지점으로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과정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생존에 대해 ‘함께 하는 열정’, 즉 공감(sympathy)을 지닌 자들이 서로가 운명 공동체를 만든다는 경험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의 열정과 공생의 논리에 무지한 유럽의 봉건기사들은 배제와 대립의 명분 아래 공존과 공생의 도가니인 성지로 다시 한 번 향한다. 잉글랜드왕 리처드 1세와 같이...

3. 영화의 바깥에서: 역사적 사실들(facts)을 찾아서...

이제 영화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자. 이 영화는 과연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역사현실을 어떻게 가공하고 있을까? 즉 역사적 사실(fact)은 영화적 허구(fiction)에 의해서 어떻게 팩션(faction)이 되고 있을까? 그전에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 영화가 설치해 놓은 허구적 장치들과 비교해 보면서 짚고 넘어가보자.

일단 실제 예루살렘을 방어했던 벨리언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적으로

8) 제3차 십자군(1189-1192)은 살라흐 앳딘의 예루살렘 함락 후 서유럽 기독교세계의 쟁쟁한 군주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십자군이였다. 잉글랜드왕 리처드 1세, 프랑스왕 필리프 2세, 신성로마제국황제 프리드리히 1세 등이 참전을 결의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먼저 제국을 호령하던 프리드리히 1세는 용감하게 진격했으나 살렘강을 건너다 익사하였고 그의 부대는 철수하였다. 앙숙이었던 리처드 1세와 필리프 2세의 경우에는 원정 도중 내내 둘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필리프 2세는 건강상의 악화로 1191년 8월 리처드 1세만 두고 먼저 귀국하였다. 남은 리처드 1세는 살라흐 앳딘을 압박하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결국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1192년 이슬람세력의 예루살렘 통치를 인정하고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슬람은 본래 기독교인들의 방문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약은 사실 별 성과라고 부를만한 것도 없는 것이었다.

가공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역사속의 발리앙 디블린(Balian d'Ibelin)은 '프랑크인'의 후손이긴 했지만 프랑스 태생은 아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정당하게 이벨린 영주권을 계승한 십자군 제후국의 귀족이었으며 영화 중 티베리아스와도 2-3살 밖에 차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버지로 나오는 갓프리라는 존재는 애초에 지어낸 인물이다. 그가 1차 십자군의 영웅 고드프루아 드 부이용(Godefroi de Bouillon)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영화적 장치 차원에서는 주인공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갈 촉매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난파를 당한 후 이슬람 현자 이마드를 만났을 리도 없으며 예루살렘 공주 시빌라와 사랑에 빠질 리도, 또 그녀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 왔을 리는 더더군다나 없다. 또한 프랑스에 왔을지라도 그가 영화 마지막에서처럼 리처드 1세를 만날 수는 없었는데, 제3차 십자군 당시 잉글랜드군은 프랑스 내륙을 가로질러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 지중해 도시들인 제노바와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거쳐 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벨린의 저택에서 본 "죽음의 무도" 테마는 12세기 말이 아닌 흑사병이 거대한 위기를 몰고 온 14-15세기에 등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부분인 예루살렘 왕국 내 파벌갈등이다.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와 기 드 튀지냥, 레몽 드 샤틀용은 실제로 예루살렘 왕국 내에서 대립하는 두 파벌을 이끌고 있었지만 전자를 열린 마음의 화평파로만 또 후자를 편협한 주전파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급박하고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지역의 정세에서 공존과 평화의 이상 대 편협하고 배타적인 잔혹함의 이분법적 대립이란 없었다. 이는 오히려 뒤에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문명의 충돌'이라는 현대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부여되고 있을 뿐이다. 십자군 제후국들 내부에서 두 파벌들 사이의 정치투쟁이 있었듯이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실제로 트리폴리 백작 레몽 3세가 연합하려고 했던 무슬림들은 살라흐 앗딘의 위협 앞에서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던 시리아의 다른 이슬람 세력들이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시 ‘시리아-팔레스틴’⁹⁾ 지역은 종교에 의한 흑백논리보다는 지중해 무역의 핵심지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 여러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충돌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정치세력들 중에 이슬람 세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듯이 다른 종교를 믿는 프랑크인들의 제후국들도 있었던 것이지 오로지 기독교대 이슬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판세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참고로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제1차 십자군의 주역들은 모두 프랑스 왕국 출신의 봉건대제후들이었다. 아민 말루프에 따르면 “아랍 사람들은 십자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프랑크인들의 전쟁 내지는 침략이라고 말한다.”)¹⁰⁾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성전도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 감동적인 장면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발리앙이 기사서임을 한 자들은 60여 명에 불과했고 항복은 유럽인들과 이 지역 토박이 기독교신자들 사이의 불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살라흐 앗딘의 관대함도 발리앙이 먼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죽이고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자결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의 해방은 몸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었고 몸값을 지불 못하면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발리앙과 시빌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성로마제국 프리드리히 1세, 잉글랜드왕 리처드 2세, 프랑스왕 필리프 2세의 제3차 십자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는 세부적인 사건들이 아닌 역사적 상황과 일상생활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시대적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십자군이라는 존재가 사실 12세기 후반에 이르러 라틴 기독교 세계에서 매우 독특하고도 낯선 존재들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9) 유럽인들은 이곳을 흔히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 세상이라는 뜻으로 ‘근동(Near East, Proche Orient)’이라고 부른다. 그 너머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으로 이어지는 곳은 ‘중동(Middle East, Moyen Orient)’, 아리아인의 ‘교향’인도를 건너뛰어서 그 너머에 있는 지역을 ‘극동(Far East, Extrême Orient)’이라고 칭한다. 이 ‘근동’, ‘중동’, ‘극동’이라는 명칭들은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에게서 ‘극서(Far West)’지역인 유럽을 중심으로 한 명칭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0) 아민 말루프, 김미선 옮김,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아침이슬, 2002), 11.

영화가 시작할 무렵 자막에도 나오듯이 이미 초기의 십자군 원정으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12세기 말에 십자군은 기독교사회의 첩병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이방인들이었다. 세 위계와 봉건제라는 상상적-현실적 제도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정착시킨 서유럽 중세사회에서 이들은 기이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었다.¹¹⁾

갓프리의 형이 동생을 맞이하는 만찬 장면을 보자(00:07:50). 여기에서 형은 갓프리에게 “기사는 기사고 수도사는 수도사지, 둘 다 될 수는 없어(A knight should be a knight, a monk, a monk, not both!)”라고 일갈한다. 10세기 말 이래로 봉건사회가 정착되어 가면서 “기도하는 자(oratores)”, “싸우는 자(bellatores)”, “일하는 자(laboratores)”, 즉 성직자-수도사, 귀족기사, 평민(농민, 상인, 수공업자)의 삼위계적 구분은 기본적인 인간질서라 여겨졌고 11세기에 들어와 이 위계는 서로 넘나 들 수 없는 것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¹²⁾ 이러한 관념이 약했을 때 조직된 ‘무장한 순례자’인 십자군은 수도원의 계율에 따르는 경건한 기사로서 수도사와 기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죽기 직전 갓프리가 아들을 기사로 서임하는 동시에 진행된 병원기사단 기사에게 고해를 하는 장면(00:36:50이후)은 이들의 이러한 위계 위반적 모습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백여 년이 지난 서유럽에서 이렇게 위계를 넘나드는 존재는 너무도 이상한 존재로 여겨졌다.¹³⁾

4. 역사와 영화의 경계선에서: 공존과 공생의 문제

이상과 같이 이 영화에서 전개되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과 몇몇 사건들은 실제 역사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모습 및 사건들과 많이 다르다.

11)홍용진, 『침략과 이주: 제1차 십자군과 예루살렘 왕국』, 『호모미그란스』 10호 (2014.6), 55-68.

12)조르주 뒤비, 성백용 옮김, 『세 위계: 봉건제의 상상세계』 (문학과지성사, 1997).

13)Sylvia Schein, “The Image of the Crusader Kingdom of Jerusalem in the Thirteenth Century”,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t.64, fasc.4(1986), 704-717.

그렇지만 영화가 기본적으로 극 또는 문학 장르에 속하는 창작품이라는 점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 영화에 접근해야 할 지점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이 아닌 역사적 문제의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매우 다양할 것이지만 먼저 이 영화를 위계의 위반과 공존의 논리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영화에서 갓프리는 운명하기 전에 새로운 땅인 성지에서 모두가 공존하는 “천상의 왕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남긴다. 모든 종교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천상의 왕국”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중세유럽사회가 지닌 두 가지 전통적인 틀들을 깬 것을 요구한다. 그 하나는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봉건사회가 요구하는 위계의 틀이다. 전자가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장벽이라면 후자는 내부에서 층위를 가른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장벽은 21세기에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장벽은 영화에서 성전기사단장 기 드 뤼지냥과 르노(레이놀드) 드 샤틀용에 의해서 대변되고 있다. 대장장이 출신의 벨리언과 식사에 함석하게 된 기 드 뤼지냥은 위계제와 문명을 동일시하며 말한다. “감히 내 테이블에 앉아 있군. (...) 못 먹겠군.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여기에는 문명화된 규범이 없어.”(00:59:20-30)

영화는 새로 영주가 된 벨리언의 활동들을 통해 서로 다른 타인들 사이에 공존과 공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접합된 이 두 기존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는 이벨린 영지에 도착한 후에 기사로서보다는 노동을 하는 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무슬림 주민들과 우물을 파고 물길을 내며 땅을 개척한다. 그것은 종교나 위계와 상관없이 모두의 삶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이다. 이는 벨리언이 사생아 출신의 대장장이라는 설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는 이미 위계들의 경계선상-귀족과 평민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창조적 노동을 상징하는 대장장이 일에 종사했었다. 영화 속 벨리언은 기존의 질서들을 용해시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자로 묘사된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대장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존과 공생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너무 현대적이지는 않은가? 사실 12-13세기에 십자군 제후국들에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 십자군운동은 흔히 알려져 있듯이 단순한 침략과 정복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수의 십자군은 이곳에 정착하고 뿌리내려 예루살렘을 지속적으로 기독교 세력 안에 장악하고 있어야 했지만 이곳의 토착민들이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무작정 몰아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전쟁과 정복 이후에, 그리고 그것들에 앞서서 생산과 일상이 가능해야 했다. 아무런 항구적 전망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온 폭력적이고 잔혹했던 제1차 십자군(1096-1099)의 성과는 그 미래가 불투명했다. 단적으로 말해 정복이라는 외피를 걷어낸다면 200년 동안 이어진 십자군 제후국들의 역사는 프랑스인들을 필두로한 서유럽인들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압적으로 불법 이주한 역사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주의 핵심적인 문제인 공존과 통합의 문제를 제기한다.¹⁴⁾

과연 십자군 제후국들에서 서유럽 출신의 이주지배층과 토착민들 간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기독교도와 무슬림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 십자군이 지배층이긴 했지만 제후국들 내부에 거주하는 피지배자들의 경우 라틴 기독교도, 동방정교도, 유대인, 무슬림, 및 기타 여러 종파들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중 하나의 종교만으로 결집된 마을도 있었고 상업적으로 변화하여 여러 종교가 공존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었다. 즉 제1차 십자군의 단순하기 그지없는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의 구분법은 이후 이 지역의 통치에 전혀 적용될 수 없었다.

또한 십자군 제후국들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기독교인들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거나 무슬림일 수밖에 없었다. 지배층은 정치적으로 주변의 왕이나 술탄들과 계속해서 투쟁을 벌였지만 그렇다고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접촉이 배타적인 방식으로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2세기에 예루살렘 왕국의

14) Ronnie Ellenblum, *Frankish Rural Settlement in the Latin Kingdom of Jerusale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Christopher Tyerman, *God's War*, ch. 7(212-240).

성직자인 기욤 드 티르(Guillaume de Tyr)는 기독교 귀부인들이 동향의 의사들보다는 이슬람이나 유대인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¹⁵⁾ 기독교 제후들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틀을 이식하려고 하면서도 무슬림들과 유대인들, 나아가 베두인족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통치제도들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서유럽의 라틴기독교세계를 떠나 멀리 십자군 제후국까지 이주하는 사람들은 십자군이나 순례자인 것만은 아니었다. 농민들 중에서도 새로운 땅을 찾아 온 자들이 있었고 지중해 교역의 발전은 다양한 상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서유럽 기독교세계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출신지는 아이슬란드와 러시아까지 포괄하는 등 매우 다양했다. 즉 십자군 제후국은 사회 전반에 걸쳐 배타적인 기독교적 가치나 서유럽 핵심부 귀족들의 십자군 대의가 모든 것을 장악한 곳이 절대 아니었다. 오히려 십자군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무슬림을 아무리 싫어하더라도 전처럼 마구 죽일 수는 없었으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공생해야만 했다. 서유럽의 진출과 더불어 지중해를 둘러싼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집결하게 되었다.¹⁶⁾

15)Guillaume de Tyr, Paulin Paris, ed., *Guillaume de Tyr et ses contini-ateurs* (Paris: Firmin Didot, 1879).

기욤 드 티르(Guillaume de Tyr, 1130-1184)는 <킹덤 오브 헤븐>의 시대인 보두앵 4세 시기의 역사서를 작성한 티르(Tyr)의 대주교이다. 예루살렘 왕국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에는 파리를 비롯한 파리 각지에서 수학하였다. ‘티르’라는 지역은 아랍어로는 “수르Sour”라 하고 동로마제국에서는 그리스어로 “Tyros”라 칭했다. 적어도 십자군 제후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곳에 정착했던 프랑크인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영어식 표기인 ‘Tyre(종종 ‘티레’라고 한국식으로 표기된다)’가 아닌 ‘티르Tyr’로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16)Pierre Racine, “Une migration au temps des croisades: les voyages de pèlerinage”, Michel Balard, Alain Ducellier(dir.), *Migrations et diasporas méditerranéennes (Xe-XVIIe siècles)* (Paris, Publications de la Sorbonne, 2002). 459-473; Pierre-Vincent Claverie, “Un exemple de transfert logistique lié à la défense de la Terre sainte: le passage en Orient de Guillaume de Roussillon(1275)”, *ibid.*, 475-483; Mohamed Ouerfelli, “Les migrations liées aux plantations et à la production du sucre dans la Méditerranée à la fin du Moyen Âge”, *ibid.*, 485-500.

구성원들의 혼종성, 그것은 십자군 제후국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개인들의 공존을 의미하며 정책적인 분리정책, 아파르트헤이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공존은 공생이 되지 못했으며 접촉은 접변이 되기 힘들었다. 다양한 원자들의 혼합은 있었으나 융합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평가는 비단 현대 연구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14세기 초에 프랑스왕 주도의 새로운 십자군 원정을 주장했던 피에르 뒤부아(Pierre Dubois)의 생각이기도 했다.¹⁷⁾ 새로운 십자군을 다시 주장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정착을 위한 교육문제였다. 즉 십자군 제후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삶의 공간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공존했으나 그 요소들이 역동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한 곳이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라틴기독교는 그리스정교회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지만 각자가 지닌 교조주의는 서로의 입장차만을 반복해서 확인할 뿐이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종교문화적 배타성과 사회 위계는 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다.¹⁸⁾

이러한 공존과 공생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는 벨리언의 생애와 십자군 내부의 파벌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공성전의 몇몇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변형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형 또는 왜곡은 분명히 서유럽 중심의 십자군 서술에 대한 교정장치 역할을 하면서 기독교-이슬람의 이분법적 논리를 배타성 및 대립 대 공존과 공생

17) Pierre Dubois, Ch.-V. Langlois(ed.), *De Recuperatione terre sancte. Traité de politique générale par Pierre Dubois*(Paris, 1891), 47-92; Walther I. Brandt(trans.), *The Recovery of the Holy La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6).

18) Andrew Jotischky, "The Frankish encounter with the Greek Orthodox in the Crusader States - The case of Gerard of Nazareth and Mary Magdalene", Michael Gervers and James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Social Conflict in the Age of the Crusades*(Syracuse University Press, 2001), 100-114.

물론 소수이지만 당대 역사가이자 십자군왕국의 성직자인 기욤 드 티르와 같은 자들은 각 종교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다. R. C. Schwinges, "William of Tyre, the Muslim enemy, and the problem of tolerance", M. Gervers and J. M. Powell (ed.), *Tolerance and Intolerance*, pp. 124-132; 페르디난트 자임트, 차용구 옮김, 『중세, 천년의 빛과 그림자-근대 유럽을 만든 중세의 모든 순간들』 (현실문화, 2013), 401-402.

사이의 대결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허구적·상상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21세기에 재개된 서남아시아를 둘러싼 심각한 국제정세와 맞물린다. 영화가 계속해서 허구와 역사왜곡을 무릅쓰고 주장하는 바는 사태의 본질을 종교문명권 간의 충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해석하기를 그만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종교이든, 민족이든, 국가이든 적대적 배타성의 만용에 빠져 나와, 또한 사회 내에서의 위계적 차별의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공존과 공생의 평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공성전이 끝난 후 벨리언과 살라흐 앳딘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02:48:15), 또 영화 막바지(02:54:36)에 이마드와 벨리언이 이번에는 상대방의 언어로 나누는 인사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은 이러한 영화의 주장에 의미심장한 방점을 찍는다. 이렇게 살라흐 앳딘과 인사를 나누는 벨리언의 시선과 표정을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리처드 1세와 대화할 때의 시선·표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앞 장면의 경우 벨리언은 정중하게 말에서 내린 살라흐 앳딘과 대등한 시선에서 서로를 쳐다보지만 표정에서는 존중의 뜻을 비춘다. 뒷 장면의 경우 벨리언은 말에 올라탄 리처드 1세를 올려보지만, 즉 리처드 1세는 권위적으로 벨리언을 내려보지만 벨리언은 서로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표정이다. “나는 잉글랜드 왕이다(I’m the king of England).”, “(그러신가?) 나는 대장장이다(I’m the blacksmith).”(02:59:10-15)

5. 나가며: 역사와 영화

공존과 평화를 주장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킹덤 오브 헤븐>은 토마스 F. 매든 및 조나단 라일리스미스와 같은 몇몇 저명한 역사학자들로부터 오히려 종교적 이분법에 입각한 적대감을 부추일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았다. 특히 기 드 뤼지냥 등 십자군 일파의 과격함과 잔인함에 비해 무슬림들과 살라흐 앳딘은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려졌다는 것이다. 즉 현재 관객의 입장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편적 정당성은

기독교인들보다 무슬림에게 부여되고 있어 오히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쁨을 붓고” 이를 정당화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영화에 나타난 수많은 역사적 부정확성, 즉 왜곡된 사실들을 지적하며 역사적 현실은 영화와 달랐다고, 역시 전문가들도 아닌 자들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없는 내용을 영화로 퍼뜨린다고 지적했다.¹⁹⁾ 토마스 F. 매든에 따르면 이들 십자군이 그렇게 난폭하거나 잔인하지 않았으며 당시에 무슬림 군대와 십자군은 비슷한 정도로 또 당대의 맥락에 맞게 교전을 펼쳤다고 말한다.²⁰⁾ 당대의 기록은 모두 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나단 라일리스미스는 기 드 뤼지냥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불량배가 아니라고 통탄해 한다.

필자는 안타깝게도 이들에게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무엇이고 또 영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만약 당시 기독교측 기록에서나 이슬람측 기록에서나 십자군에 의한 학살이 과장된 것이라면 과연 그 과장의 근거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정복을 무슬림 군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잔혹한 대학살과 연결시키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토마스 매든의 주장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 수를 축소하는 일본의 이른바 중도 및 우익 역사가들과 닮았다. 사실 잔혹함의 기억은 학살자의 수(양적 측면)가 아니라 잔혹함의 폭력성(질적 측면)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죽음, 비인간적인 죽음과 같이 말이다. 다른 한편 라일리스미스의 경우에는 자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사극들을 읽어보라고 권해보고 싶다. 얼마나 많은 역사왜곡이 있는지 말이다. 극과 역사학이라는 장르의 구분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 대표적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과 미국의 십자군 전문 역사학자인 조나단 라일리스미스(Jonathan Riley-Smith)와 토마스 F. 매든(Thomas F. Madden)을 들 수 있다: Jonathan Riley-Smith, “Ridley Scott’s new Crusades film ‘panders to Osama bin Laden’”, *The Telegraph* (18 Jan. 2004); Thomas F. Madden, “Onward P.C. Soldiers: Ridley Scott’s Kingdom of Heaven”, *National Review Online* (May 17, 2005).

20) 이러한 입장은 토마스 F. 매든이 집필하고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십자군』의 기본 논조이다. 토마스 F. 매든, 권영주 옮김, 『십자군』(루비박스, 2005), 31-32쪽[Thomas F. Madden, *The New Concise History of the Crusade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역사를 소재로 한 모든 창작물들은 그 극적 구성 때문에 사실과의 차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세한 역사적 사건과 사실에 대한 실증주의적 대조가 아니라 그 사극이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역사를 둘러싼 담론의 장은 전문적인 역사학자들만의 것은 아니다. 역사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역사를 둘러싼 정치문화적 투쟁의 장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문제제기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때로는 영화가 실증적 역사서술은 하지 못하는 역사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변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은 역사적이다. 그것이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또 역사가 언제나 현재의 역사라는 점에서도 말이다.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hadrianus@hanmail.net

주제어: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역사영화 (Historical Movie), 십자군(Crusade), 공존(Coexistence), 세 위계 (The Three Orders)

(투고일: 2015. 5. 15, 심사일: 2015. 6. 7, 게재확정일: 2015. 6. 11)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국문초록>

영화 <킹덤 오브 헤븐(Kingdom of Heaven)>
: 공존과 공생의 논리에 대한 역사적 탐구

홍 용 진

2005년 개봉된 리들리 스콧의 영화 <킹덤 오브 헤븐(천상의 왕국)>는 세세한 역사적 고증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줄거리와 역사적 사실 차원에서 역사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이른바 ‘역사왜곡’의 문제가 이 영화의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사왜곡을 무릅쓰고 이 영화가 강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진정한 의미의 공존과 공생을 12세기 십자군의 역사에서 모색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대외적인 종교적 이분법과 대내적인 위계적 구분을 넘어선 인간공동체에 대한 회구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영화에서 이 두 가지 장애물들은 상호전제적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화는 이른바 ‘천상의 왕국’이란 내세의 다른 어느 곳이 아닌 이 두 장애물들이 모두 극복되는 현실 세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은 실증적인 차원에서 역사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극작품의 자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만한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른바 실증적 역사서술이라는 것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문제의식을 오히려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 의미심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Abstract>

Historical Research on the aspect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Film <Kingdom of Heaven>

Yong-Jin Hong

The film <Kingdom of Heaven> of Ridley Scott released in 2005 aroused historical controversies about historical facts and its main synopsis despite its accuracy in historic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so-called 'problem of historical distortion' doesn't harm historical values of this movie. Its insistent problematique despite historical distortion consists in search for coexistence and symbiosis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in the crusade history in 12th Century. It is expressed in aspiration for the human community beyond the religious dichotomy in external dimension and the hierarchical distinction(three orders) in internal dimension. Especially these two obstacles establish a close inter-prerequisite relationship in this movie. In this sense, the movie show that the so called 'kingdom of heaven' doesn't exist in somewhere in the next world but in the actual world overcoming these two obstacles. In spite of historical distortions of the movie <Kingdom of Heaven> in the point of positivist view, they are acceptable in the artistic dimension of work of drama. What is more important is that this movie present significantly the historical problematique neglected by positivist historical writings.